# 강진에 '유배문학관' 세운다

## 도암면에 40억원 들여 내년 완공
## 압송용 수레·유배자 서신 등 전시

유배 관련 인물의 문화자산을 일깨우고 그들의 사상을 보존 기념하기 위한 '유배(流配) 문학관'이 강진에 세워진다.

강진군은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0억원(건축비 30억원, 유물구입비 등 10억원)을 들여 도암면 다산 유물전시관 부근인 만덕리에 '유배 문학관' 설립을 추진한다.

유배문학관은 건물면적 661㎡에 2층 규모이며 기획전시실, 유배문학실, 유배역사 체험관이 들어선다. 유배문학관 건립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곳에는 유배 중에 사용된 압송용 수레, 형틀 등과 역사기록으로 남겨진 옛 선현들의 생활상이 현장감 있게 재현된다.

또한 지역의 향토문화와 유배문화가 어우러진 무형의 독특한 민속유산을 보존하고 시와 편지, 저서 등을 책으로 엮어 후손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당대의 희생자였고 패배자들이었던 유배 선인들을 차별적으로 부각시켜 역사및 교육자료로 새롭게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유배문화의 문화관광 체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이 풍부한 남도답사 1번지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재 관광개발팀장은 "유배생활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유배문학관에 되살려 차별화된 문화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배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고창 오거리 당산제** 지난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고창 오거리 당산제가 지난 19일 군민과 관광객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창군 동리국악당 광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전국 당산제 중 가장 규모가 큰 오거리 당산제는 한해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음력 2월 초하루 날 열린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광산구 도로변 나무심기** 광산구는 20일 월계동 방송통신대 옆 녹지대에 5년생 편백나무 1천500 그루를 심었다. 광산구는 이날 식수로 주변 고속도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식목 행사에는 전갑길 구청장(가운데)과 구민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 화순군 외국기업 유치 나선다

## 군수 등 투자유치단
## 25일부터 독일 방문
## 생물산업 유치 활동

화순군이 외국기업 유치에 나섰다.

화순군은 오는 25일부터 8일간 전완준 군수를 비롯 전남투자유치단장, 생물산업연구센터 소장, 군의원 등 7명의 투자유치단이 독일을 방문, 생물의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유치단은 벨레르스하임과 획스트 산업단지를 비롯 프라운호퍼 연구소, 바이론펄사, KFN 병원 등을 방문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세계적인 응용기술 연구기관으로 과학자, 공학자 등의 연구원과 직원만 1만명에 달하고 연간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따라서 이 연구소를 화순에 유치할 경우 화순 생물의약 산업의 인력양성과 기술 확보, 백신 공동 개발 등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또 뮌헨의 생약치료병원인 KFN 병원은 수백년간 발전되어온 생약 위주의 처방과 치료법을 최첨단과학기술에 접목, 명성을 얻고 있어 화순군이 투자유치를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도청 통근버스 운행지역 확대를"

## 광주·목포 구간만 운행 타지역 공무원 불만
## 출·퇴근시 교통비 지급 등 보완책 마련 요구

전남도가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 제도가 광주와 목포지역 거주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지역을 제외한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5년 10월 도청이전과 함께 연간 8억원의 예산으로 직원 출·퇴근용 버스 15대를 입찰방식으로 대여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통근버스 15대 가운데 12대는 광주광역시~도청구간, 3대는 목포시~도청 구간에 투입되고 있다.

이때문에 광주와 목포를 제외한 도내 시·군 거주 공무원들은 일반 시외버스나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외버스 시간을 맞추기 위해 퇴근을 서두르거나 늦춰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근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도청 공무원들은 "엄밀히 말해 타 시·도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우대하고 지사 선거때 투표권이 있는 전남지역 공무원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 "통근버스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청 관계자는 "공무원 통근버스는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거주 공무원들의 편익을 위해 오는 2008년 3월까지만 운행하는 한시적인 복지시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330여명인 반면 목포권을 제외한 도내 일선 시·군에서 출퇴근 공무원수는 50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함평 행정 빨라진다

함평군이 20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부군수와 실·과·소장의 권한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무 전결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결재 비율이 종전 군수 9.7%, 부군수 15.6%, 실·과·소장 57%에서 군수는 4.5%로 대폭 낮아지고 부군수와 실·과·소장은 19.4%, 58.3%로 각각 높아졌다.

함평군은 앞으로 업무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장성 아카데미 서비스 '진화'

## 3천여명 안팎 평생회원 모집
## 강좌 정보 제공·테마 다양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새롭게 도약한다.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를 지역혁신과 기업경쟁력 제고의 장으로 삼기 위해 회원 중심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를위해 최근 주민과 유관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 등 3천여 명 내외의 평생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군은 '평생 회원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한 회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장성아카데미는 분야별 회원들이 요구하는 강사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테마별, 특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 직원들의 재교육 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한 실용중심의 강좌도 개설키로 했다.

평생회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아카데미 강좌 정보를 제공하고, 연말 우수기관·단체 우수회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지난 1995년부터 12년 동안 528회에 걸쳐 25만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구례쌀·산수유 홍보** 농협중앙회 구례군지부(지부장 김희태)는 지난 15~18일까지 열렸던 제 9회 산수유꽃 축제 기간동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구례군청과 함께 산수유와 구례쌀 홍보활동을 벌였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고흥署 녹동지구대 초등 '범죄예방교실'

고흥경찰서 녹동지구대는 지난 19일 도덕초등학교 4·5·6학년생 6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고흥경찰은 학교폭력 예방법과 대처 요령 등을 교육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